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 등록교우 : 이희문 집사님, 김도향 권사님입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박성대 집사님입니다.
4.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5. 2주 정도 늦었지만, 예·결산 통과를 위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다음 주일(2/4) 2부 주일낮예배 후에 가지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강복시찰 목사회 모임이 내일(1/29) 오전 10시 30분 하늘문교회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여선교회에서 청소 등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월 28일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예배기도(2부)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김금옥 권사 가정	설 연휴	장영자 권사 가정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힘안), 예주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서교독	..... 교독문 95번(가정의 주일)	다같이
*경배찬송	..... 29장(통 29장)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 353장(통 391장)	다같이
대표기도	.....	1부인도자, 2부신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잠 16:1-9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도자
말씀선포	.....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	인도자
*결단송	..... 620장	다같이
*축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하기를 청중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은 상상의 그림이지만 언젠가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힘을 준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中 홍경빈, 박현숙

©GODpeople.com (인스타그램 : godpeople\_com)

**WEEKLY WORSHIP 주중예배**

<b>수요예배</b>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4:25-33 '두려움은 백해무익'	허영진 목사
<b>금요기도회</b>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b>새벽기도회</b>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름다운 북한강변을 끼고서 맛집과 카페가 즐비한 금남리로 내달렸다. 갓 북아 내린 커피가 생각나서다. 여기까지 쓰면서 밝혀줄 게 있다. 첫 문장은 사실이고, 그 다음 문장은 거짓이다. 사실 난 아메리카노 같은 내린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순전히 아내의 강요(?)에 의해 가진 가지만, 거기서 마시는 커피는 그렇게 쓰고 텅텅할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음미해보지만 이내 손사래를 친다. 그래서 내겐 내린 커피보다 가공된 인스턴트 믹스커피가 훨씬 더 좋다. 혼자 마셔도 좋지만, 여럿이 둘러서서 종이컵에다 마시는 커피믹스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카페에서는 믹스커피를 팔지 않으니 그곳에 들릴 때마다 곤혹스럽다. 어쩔 수 없이 유자차나 대추차 같은 차 종류나, 그도 아니면 레모네이드나 자몽주스 같은 탄산이 가미된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다.

이 날도 퇴원한 후 처음으로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금남리쪽으로 드라이브를 했다. 카페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Y카페를 찾았다. 커피 값이 다른 곳보다 싸서 그런지 카페 안은 꽤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라떼 두 잔을 주문했다. 주문하고서 기다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온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다. 알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과 대화들이 오간다. 어떤 커플은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주머니 받거리 얘기를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있는지 연신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 웃음을 터뜨린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분위기가 참 좋다. 사람 사는 맛이 나서다. 사람과의 어울림은 이래야 된다고 말한다면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짓궂은 것일까. 다만 아쉬운 것은 믹스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데 있다.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손에 받아서 라떼의 향긋한 향기가 진동한다. 거기다가 시럽도 듬뿍 넣었다. 한입 삼키니 아쉽지만 커피 맛은 전혀 나질 않는 달콤한 맛 그 자체다. 마시면서 마실수록 입꼬리가 당겨졌다. 우두커니 창밖만을 뚫어쳐라 쳐다보고 있으니 아내가 말을 걸어왔다. 평소엔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참이나 나누었다. 새로운 것도 없지만, 분위기 탓인지는 몰라도 둘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보다. 그렇게 한참 생각의 물길을 걸어 올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고 했다. 커피 한 잔을 마주하며 새삼스레 생각했다. 갈수록 대화가 단절되는 시대이지만, 변화의 속도와 사람의 정(情)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봄도 좋을 듯싶다.

Written by 허영진